

동화사, 한몽불교교류 앞장

협의회 새 임원진 구성...사단법인화 추진

한국과 몽골 불교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003년 8월 대구 동화사와 몽골 간 단사가 결성한 한몽불교교류협의회(총재 지성)가 12월 12일 몽골 노동자를 동화사로 초청, 한국불교체험 행사를 열며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몽불교교류협의회는 대구 성서, 이현, 농공 공단의 몽골 노동자를 동화사로 초청하기 위해 공단을 찾아가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12일 동화사를 방문하게 될 몽골 노동자들은 점심 공양 뒤 동화사를 둘러보고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지역불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한몽불교교류협의회는 몽골 노동자로 교류의 불교를 타고 향후 양국스님들의 교류, 불교 대학간의 교류, 불교 유물 연구 등에 대한 교류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1월 18일 반월당 보현사 문화관에서 열린 한몽불교교류협의회 이사회 이후부터. 19명의 이사가 참가한 이날 이사회에서 한몽불교교류협의회는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몽골 노동자 초청을 포함한 향후 계획과 사단법인 설립 추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운대학교 이외수 교

로 했다. 특히 한국과 몽골간의 불교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안으로는 몽골 스님 초청 몽골인 초청법회와 대구지역 몽골 노동자 초청행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미얀마 불교 성지 순례를 통해 지역불자들의 해외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미얀마 성지 순례도 개최한다.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동화사 본말사 신도 108명을 모집하여 미얀마불교성지순례를 갈 예정이다.

몽골불교계를 대표하는 간단사 주지 초이참초 스님을 초청, 창립된 한몽불교교류협의회는 그동안 유니버시아드 대회시 몽골 선수단 격려금 전달, 몽골 불교발전 기금 전달, 몽골불교계 지도자와의 간담회 등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배지선 기자 jusun@buddhapia.com

12월 12일 몽골 노동자 초청 행사

대학간 협력·유물연구 등 확대 방침

수가 회장에, 부회장에 윤완목(미성테크 대표) 김정남(역조상사 대표) 씨, 감사에는 화장사 주지 일경 스님과 청도 한옥학교 변숙현 교장이 선출됐다.

또 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임원단 구성을 비롯한 구체적인 논의의 이어가

“후배들 위해 소임 다할 것”

대불련 대구·경북 동문의 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이하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 500여 명이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가 11월 27일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04년 동문의 밤(사진)을 개최한 것.

2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대불련 동문들은 친제된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재학생들의 지부결성과 활동을 돕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10개 지회에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한 선배 동문들이 불교의 중추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 임해수 회장은 “본 동문회가 선후배의 소중한 인연 맺기를 통해 참다운 공덕의 씨앗을 가꿔 나가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김해 포교 활성화 닷 올랐다

(사)가야불교문화원 개원

가야불교의 역사를 복원하는 중심도량이 될 (사)가야불교문화원(이사장 한파)이 김해 동상동에 문을 열었다.

(사)가야불교문화원은 11월 28일 개원 법회를 봉행하고 가야문화 복원사업, 가야 문화 학술 연구 및 김해지역 포교 활성화에 기발을 올렸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송은복 김해시장을 비롯한 7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한파 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칠불이 탄생한 불모의 땅이며 가야 문화의 발원지인 김해지역 불교를 다시 꽃피우기 위한 사부대중의 발원이 담긴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 스님은 범어를 통해 “모든 존재의 불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심이야말로 불교의 바른 가르침”이라며 “가야불교문화원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널리 퍼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굴사 선무도 시연에 이어 열린 개원법회는 경과보고와 더불어 그동안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과 불자들에게 대한 감사패 증정의 순서로 이어졌다.

건평 4백 평 규모의 지상 4층 건물인 가야불교문화원은 김해가락불교거사사회, 김해불자자비회, 김해불교합창단, 김해불교청년연합회, 김해불교산악회 등의 산하단체를 두고 김해지역 불교 발전을 이끌게 된다. 4층에는 장유화상을 모신 조사전을 갖추고 수행, 기도 공간으로 활용되며 향후 다목적 세미나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가야문화 복원사업, 가야문화 학술연구 및 간행물 교재 기획 발행,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국제문화 교류, 지역 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야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확한 쌀 90포대 이웃에게

부산 보현의 집 노숙자들이 전달

12월 1일 동래구 관할 독거 노인세대에 있는 노숙자 쉼터 부산 보현의 집에서 12월 9일 오후 7시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44명의 환희지향단 단원들의 합창은 물론 소프라노 정서영 씨의 독창, 각 사찰 합창단 지휘자들로 구성된 가톨릭가 합창단의 중창, 바리톤 김성국 씨의 독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선보인다.

특히 식전 행사로 한석만 씨 9명의 다도시연 환공대제가 선보이며 의뢰 스님의 천년의 기억 중창과 사물놀이 등이 무대에 올려진다.

천미희 기자

구미시청불자회, 콘서트 개최



“하루 빨리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11월 30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구미시청불자회가 창립7주년 기념행사로 인기연예인과 우담바라예술단을 초청 위문 공연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우담바라 예술단의 월연·백운·태화 스님, 시민복지회관 스포츠댄스팀 등이 출연해 산재 근로자를 포함한 300여명의 장기입원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문했다.

배지선 기자

환희지향단 음악회 개최

불자 교육의 요람인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을 수료한 신심 깊은 불자들이 결성한 환희지향단(단장 손순금)이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12월 9일 오후 7시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44명의 환희지향단 단원들의 합창은 물론 소프라노 정서영 씨의 독창, 각 사찰 합창단 지휘자들로 구성된 가톨릭가 합창단의 중창, 바리톤 김성국 씨의 독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선보인다.

특히 식전 행사로 한석만 씨 9명의 다도시연 환공대제가 선보이며 의뢰 스님의 천년의 기억 중창과 사물놀이 등이 무대에 올려진다.

천미희 기자

남골당 설립 신고서 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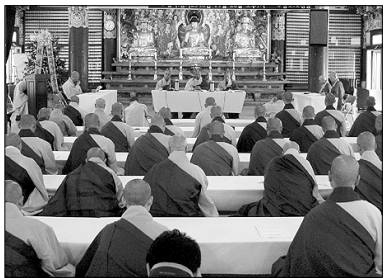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남골당 설립 신고서를 집담민원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1월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경주 보광사가 경주시를 상대로 낸 ‘남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주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보광사가 지난 6월 제출한 경내 남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남골당 설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경주시는 설치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경주시 보광사는 지난 6월 경내 56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남골당을 짓겠다고 신고서를 냈다가 경주시가 반려하자 경상북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배지선 기자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 위한 2차 토론회’

“출가·승가정신 되살리자”



“총림의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심오한 이론과 제도를 만들기 전에 투철한 출가정신과 승가정신을 고취하고 강화해야 한다.”(혜능 스님)

진정한 수행 진솔한 자가 진단...다양한 방안 모색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원택 스님,

울주 종진 스님, 강주 종목 스님 등 본말사 및 산내 암자스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솔한 자가 진단이 내려지고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혜능 스님(울원장은 “기본적인 조석예불이나 사시마지, 포살 법문 등 대중적인 의식에 빈자리가 많고 무관심하다”며 “계와 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성 스님(회랑대 감원)은 “차문반에 편안화, 울원장 스님의 부재시를 대비한 자율학습제도와 수학 연차에 따른 교과과정 정비”를 제안했다.

법진 스님(대교반 감사는 “대중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포살의 내용과 형식, 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지선 기자

29일간 영축산 가득 ‘사자후’

통도사 12일부터 화엄산림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은 12월 12일부터 1월 9일까지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화엄경의 방대한 가르침을 24명 선지식들의 사자후로 2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자들에게 전달하는 화엄산림법회는 12월 오전 10시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화엄산림법회 기간 중에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선방부모와 일체 영가를 위한 천도의식이 함께 열린다.

12월 12일 오전 10시 입재법문은 원로 의원 조우 스님이, 오후에는 통도사 전계 대회상 해남 스님이 현담을 맡았다. 13일부터 24일까지는 지안 스님이 세주묘엄 품과 여래현상품을, 15일에는 재문 스님이 보현삼매품과 세계성취품을, 16·17일에는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이 화상세계품과 비로자나품을 맡았다. (055)381-1288 천미희 기자

행원상에 송인식 씨 선정

마창불교련, 시민불교문화상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는 12월 1일 제 14회 시민불교문화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광석)를 열어 행원상(지영개발)에 송인식 마산 동서화랑 주무, 문학상에 이우걸 경남문인협회장, 예술상에 여현주 창원국악협회장을 각 부분별 수상자로 선정했다.

행원상의 송인식 씨는 동서미술상을 제정해 향토 작가 발굴·육성에 크게 공헌했다. 문학상의 이우걸 씨는 향토문화 발전과 문학인구의 자변확대에 기여했다. 예술상의 여현주 씨는 창원 아를레지 원무, 퇴촌농악 등을 발굴 재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300만원이 전달되며, 시상식은 12월 9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열린다. (055)222-1393 천미희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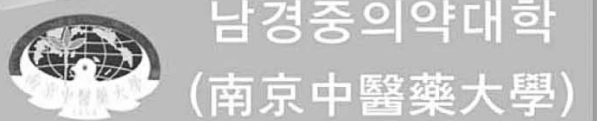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2월 1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부산·경남 접수처 : 한국한의원(☎ 051)501-0025)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